

강북문화재단, 전국 문화동행 페스타2관왕 달성

윤 김지원 기자 | 승인 2026.07.23 09:42

‘그림책 아트플레이’ 성과 인정



강북문화재단이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강북문화재단이 전국 단위 행사인 '2026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과 전국 우수 참여재단 2위에 오르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국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우수 문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재단은 현장에서 대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강북 그림책 아트플레이'의 운영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첫선을 보인 해당 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연계 기관을 꾸준히 확장하며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억배 작가 특강 등 다채로운 기획을 더해 사업 초기 150여 명에 불과했던 참여 인원을 4천700여 명 규모로 대폭 늘리는 결실을 맺었다.

이 같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장상을 3년 연속 품에 안았으며 현장 참가 재단들이 직접 선정한 우수 참여재단 부문에서도 2위에 올랐다.

재단 관계자는 "전국 무대에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입증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 기자

kjw919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원 기자